



# 홍수보험의 보장격차와 위험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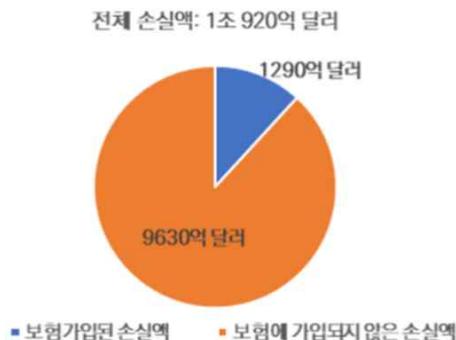
안소영 연구원

요약

홍수재해로 인한 손실이 자연재해손실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홍수보험의 가입률이 낮아 보장격차가 존재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홍수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적은 이유는 홍수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홍수보험이 비싸다는 인식 등과 관련이 있었음.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위험관리의 수단으로 홍수보험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홍수재해로 인한 손실이 자연재해손실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홍수보험의 가입률이 낮아 피해손실액의 대부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보장격차(Protection Gap)가 존재함<sup>1)</sup>
  - 홍수재해로 인한 손실은 198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자연재해 손실(Loss-related Natural Catastrophes)의 약 40%를 차지함
  - 반면 보험으로 보장된 손실액은 전체 손실액의 12%에 불과함(<그림 1> 참조)
    - 이는 낮은 홍수보험 가입률과 일부지역으로 제한된 보장범위의 적용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1980~2019년 홍수재해 보장격차



자료: Munichre(n.d), "Risks from floods, storm surges and flash floods"

1) Munichre(n.d), "Risks from floods, storm surges and flash floods"

■ 미국에서 실시한 홍수위험 및 보험인식조사에 따르면 홍수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홍수위험에 대한 과소평가와 홍수보험이 비싸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음<sup>2)</sup>

- 최근 미국 홍수보험회사인 Neptune Flood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과 공동으로 홍수위험 및 보험인식조사를 실시함
  -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및 뉴저지 등 36개 주에 있는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미국 가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6,200만 가구가 실제 보통에서 매우 높은(moderate to extreme) 수준의 홍수위험에 처해있음에도 조사대상의 대다수 응답자(63%)는 거주지에 홍수위험이 낮거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 응답자 중 54%만이 실 거주지에 홍수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45%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감당할 수 없다는<sup>3)</sup> 재정적인 이유로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는 거주지가 홍수에 어느 정도 취약한 지역인지 인지하지 못해 자율적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sup>4)</sup>

- 응답자의 절반 가량(49%)은 자신의 거주지가 홍수에 어느 정도로 취약한 지역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응답자의 약 30%는 홍수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보험가입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갱신할 의향이 없었음<sup>5)</sup>
  - 특히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15%는 의무가입이 아닐 경우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 홍수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장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함

- 정책당국은 관련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홍수 위험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사례로 영국 웨일즈 환경청과 스코틀랜드 환경청의 홍수위험 캠페인이 있음<sup>6)</sup>
  - 영국 웨일즈 환경청(Environment Agency Wales)이 시행한 Flood Awareness Wales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는 기업·학교와 협력하여 홍수위험 교육을 실시하였고, 6,000명의 신규고객이 홍수정보서비스를 등록하도록 유인함

2) University of South Florida(2020), "Flood awareness survey developed by USF professor finds public minimizes risk of flooding, resulting in low demand for flood insurance"

3) 2019년 판매된 홍수보험의 평균 가격은 약 708달러였음

4) Carrier management(2020), "Consumers significantly underestimate their flood risk: Neptune flood insurance"

5) University of South Florida(2020), "Flood awareness survey developed by USF professor finds public minimizes risk of flooding, resulting in low demand for flood insurance"

6) Flood awareness(2013), "Raising flood awareness"

- 스코틀랜드 환경청(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은 지역사회에 홍수위험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트레이일러 영상을 배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영상을 시청한 96%의 응답자가 홍수위험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홍수피해를 대비하고 보험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홍수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kiri**